참선민은 쓰리쿠션 당구 안친다

(민15:1~41)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3.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4.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십분의 일에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준비할 것이요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선민은 쓰리쿠션 당구 안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참선민은 쓰리쿠션 당구 안친다'
"쓰리쿠션 당구"라고 할 때 '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대충 아실 것입니다. 벽에 당구공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흔히 쓰리쿠션은 당구공 3개가 당구대에 올라가있으면 큐대로 당구공 1개를 쳐서 나머지 당구공 2개를 맞추게 됩니다. 2개의 공을 맞추는 과정에서 큐대로 친 공이 벽을 3번 이상 맞추면 됩니다. 네 번 맞춰도 되고, 다섯 번 맞춰도 되는데 하여간 내가 친 공이 다른 공을 맞춘 다음에 3번 벽에 맞든지, 먼저 벽을 치고 나서 나머지 공을 맞추든지 3번 이상 쿠션이 있어야하고 2개의 공을 맞춰야 1점이 되는 것을 쓰리쿠션 당구라고 하는데, 참선민이 쓰리쿠션 당구를 안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봅니다. 사람의 인생이 진행되는 세상을 당구대로 비유하면, 70억 인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쓰리쿠션 당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선민이라면 절대로 쓰리쿠션 당구를 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큐대로 공을 1개치면 나머지 공 2개를 맞춰야 되는데 쿠션 없이 공을 직접 맞추는 것이 참선민인데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생을 쓰리쿠션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삼 형제 중에 막내인데 어렸을 때에 둘째 형과 방을 같이 썼습니다. 두 살 차이로 고등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좀 이상주의자이셨는데 자식들을 앉혀놓고 늘 '꿈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꿈과 비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에 '꿈과 비전'이라는 말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사실은 꿈과 비전의 선봉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 형은 꿈이 있었는데 검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님 두 분이 다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제가 형에게 '왜 검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백번, 천번 '내 꿈은 검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꿈의 이유가 정의구현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도 '돈을 벌기 위해서 검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니,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지 않고 왜 검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둘째 형이 하는 말이 '티끌 모아 태산은 막연한 속담으로 헛된 말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면 돈 벌기의 출발점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유착의 판세를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읽었던 것인데 이게 바로 쿠션인생입니다. 돈을 버는데 검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당구대인 검사의 벽을 부딪쳐서 돈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둘째 형의 어릴 적 생각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 교수라는 벽에 부딪혀서 인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교수는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명예 직분으로 생각하고 인기의 발판으로 생각하며, 교수가 되어서 관직을 원하고 학교에서 보직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이 쿠션이 되어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연봉 1억 이상의 좋은 직장, 안정 된 삶, 좋은 결혼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인생은 전체가 쿠션인 것입니다.

검사가 되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권력이 쿠션이 되어서 마지막 목표는 돈이 되는데 돈은 쿠션이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세상이라는 당구대에서 벌어지는 인생살이 당구치기에서 마지막으로 맞춰야 하는 공은 결국은 만족이고 결국은 기쁨이고 결국은 행복입니다. 사람이 만족이 안 되면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결국은 만족할 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좋은 곳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교수가 되고 관직에 오르고 대통령이 되는 일조차도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느끼는 보람을 마지막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재판소에 가서 치욕과 굴욕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마지막 골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족하려고 하는데 왜 쿠션을 통해서 맞추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이라는 당구대의 벽을 맞추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왜 이 세상 안에 있는 검사라는 쿠션을 맞춰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마지막 공을 맞추려고 하는데 굳이 일류대학이라는 쿠

션, 돈이라는 쿠션, 권력이라는 쿠션, 성공이라는 쿠션, 승진이라는 쿠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느냐는 것인데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실제 당구 세계에서 쓰리쿠션은 기가 막힌 예술입니다만, 비유적으로 세상을 당구대라고 볼 때에 마지막 공 맞추기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툭 쳐서 그 공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쓰리쿠션을 하려면 각도를 재고 길을 찾아내야 하는데 상상도 못할 길을 통해서 맞춰야 하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천 명입니까? 만 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돈은 쿠션이 돼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직접 얻은 사람이 행복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돈과 관계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왜 돈을 쿠션 삼아서 행복을 추구합니까? 관직에 오르는 것이 쿠션이 되면 안 됩니다.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직에 오를 수 있고 관계 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왜 관직과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대학도 그렇습니다. 일류 대학도 있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이류 삼류 대학도 있지만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구분된 삼류 대학을 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내용적으로 일류 대학입니다. 행복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삼류 대학을 가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것이므로 그 대학이 일류 대학이 되는 것인데, 왜 직접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 직접 만족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직접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 꼭 쿠션을 통해서 얻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각도 재기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을 찾아내야만 맞출 수 있는 쓰리쿠션 당구 시합으로 인생을 만드는데 이게 마귀가 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기에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보세요. 15장은 14장과 16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선민을 광야에서 배회하도록 정하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자들이 죽을 때까지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은 이 38년 광야유랑 여정 중에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고라 일당의 모세에 대한 반란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에서 38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38년 광야유랑 여정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4장과 16장 사이에 38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15장에 그 광야유랑 여정의 의미만 담아서 함축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38년 광야유랑 여정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 38년 기나긴 광야세월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광야생활을 통해서 선민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내용을 본문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했던 율법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반복하는 것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언뜻 보면 김이 샙니다. 또 제사를 이야기하시느냐는 것입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의 의미가 함축됐다고 느껴지는 15장의 내용을 보니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까지 소제와 전제에 대한 얘기나 나오는데 강조점이 실려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 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보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반복해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겉옷(보자기를 가운데 구멍을 내서 뒤집어쓰는 것 같은)을 만들 때에 네 귀퉁이에 술(레이스)을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38년 방랑의 여정을 함축하는 말씀의 의미가 될 것이냐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41절부터 거꾸로 봅니다.

언뜻 보면 이 맥락에서 제사법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데, 모든 성경 본문이 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표현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여호와로 너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라는 말은 '나는 너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로 너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니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선민(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돈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할 때 돈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애인하고 한창 뜨겁게 사랑할 때에 자나 깨나 직장에 가도 집에 있어도 늘 마음에 애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갖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앞의 40절에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하나님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돈으로 가득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을 문제 삼는데 그것은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사님들은 마음에 예배당 건축으로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을 문제 삼는데 못 지켜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가질 때에 저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38~3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더하라 /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는 말에서 '음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빈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 만족의 욕구와 열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비어있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삶을 위한 에너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에서 '욕심'은 우리가 가져도 되도록 허락된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라는 말에서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그 자리에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것들 중에서 당겨오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원래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은 아내와만 지내야 될 그 순간과 그 자리에 아내 외의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남편과만 할 수 있는 자리에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골라내신 선민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되는 자리로 만드셨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려고 자나 깨나 자식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음행입니다. 사업가가 돈만 생각한다면 음행입니다. 교수가 공부만 생각한다면 세상에서는 교수 본연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것이 음행입니다. 교수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가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다음에 하는 것이고, 엄마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자식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어떻게 해야 간음과 음행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레위기에서 제사법의 요약적인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번제'는 눈이 보는 이 세상 것들을 마음으로 끌어당기려는 체질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나를 죽이는 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내 마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세상을 담고 세상으로 가득 채운 이 마음을 죽이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가루를 내어서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립니다. 가루가 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의 '항상, 범사, 쉬지 않고'를 말합니다. 모든 시간들에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적 자세로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이야기이고, 화목제적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물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것인데 세상을 끌어들이려는 마음이 번제로 죽고, 하나님께만 드리려는 화목제가 이루어지는데 여

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끝내라’는 것이고, 여기서 소제가 곁들여져서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에 대해서 죽는 번제가 마음속에서 활활 타올라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서 하나님과만 사귀는 화목제가 활활 타올라야 하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만 화목한 이 관계에서 전제인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가 기쁨을 뜻하는 것이므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문제를 끝내라’는 것인데 또한 오늘 본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레위기에서 ‘나와 이렇게 끝내야한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키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말고 제3자를 만나는 사건이 정탐사건이었는데 이 제3자인 가나안 족속을 대하자마자 가나안 족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선민이지만 가나안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은 내가 이 땅에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가나안 족속을 보자마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기쁘기는 틀렸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돈이 없는 한 기쁘기는 틀렸다고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있는 대신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돈이 없는 한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자식의 성적이 나쁜 한 기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건강이 부족한 한 기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게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다시 기쁨과 만족의 문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완전히 끝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보여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38년 동안 광야생활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속죄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쿠션을 통하지 않으면 내게 기쁨이 주어질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울면서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울면서 목사님들이 예배당 건축 잘하게 해 달라’고 하는 이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고 고의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다 죽게 된 것을 감안할 때 ‘고의로 지은 죄’는 의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있어도 나에게 이 세상의 쿠션이 없는 한 행복을 적중시킬 수 없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버린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부지중 지은 죄’는 하나님만 있으면 기쁘다며 인정하고 시인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느덧 돈을 원하고, 어느덧 자식의 성공을 원하고, 어느덧 승진을 원하고 그것이 없어서 걱정이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이 끝날 수 있다고 인

정하고 시인하고 아는데, 죄적 체질 상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원하고 깜짝 놀랄 때 이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마음과 눈의 탐욕을 따라서 세상 것을 담고서 38년 동안 죽음으로 끝나는 광야의 삶을 다시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쿠션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요소들을 벽 삼아 거기에 튕겨지지 않으면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이고 이게 38년 광야에서 20살 이상이 다 죽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선민은 절대로 쓰리쿠션 당구를 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전제의 의미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한 순간도 쓰리쿠션 당구를 치지 않는 삶이 이제부터 전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